

# 매각은 파산... "묘안찾자"

## 부도위기 불교TV 어찌되나

불교TV(사장 신해스님)가 3월부터 주주총회, 이사회, 조계종 중앙종회 bm 특위 활동 등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방송 동종 구르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불교TV의 금융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늦어도 20일까지는 채무와 관련된 서류를 성업공사로 이관시킬 예정이어서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불교TV는 15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26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경영자를 선임키로 한 가운데 3명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어 회생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또 13일 사의를 표명한 대표이사 신해스님의 사표는 상법상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 ■ 경영권의 향방

13일 대표이사 신해스님이 공식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15일 현재 새 경영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스님 1명과 재가불자 실업인 2명. 1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영숙이사의 추천으로 대표이사 후보에 올라 있는 모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교TV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산의 모 실업인은 70여명의 부채 해결은 물론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청주의 모 실업인은 70여명의 부채 해결과 함께 30여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조계종과의 관계 모색

불교TV 회장 태승스님은 15일 열린 이

## 새 경영자 3명 물망...부채 70억 해결 '주목' 조계종, 國銀에 성업공사 이관 연기 요청

사회에서 종단이 불교TV를 인수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부채도 지분을 양도할 생각 있다고 밝혀 종단의 지원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한 신해스님을 통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자원 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종단의 인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TV 이사들은 17일 고

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방문해 새 경영진 추천을 요구하기로 했다.

### ■ 조계종 bm 특위 활동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계종 중앙종회 bm 특위는 세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불교TV의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14일에는 특위 위원스님들이 불교TV를 방문해 실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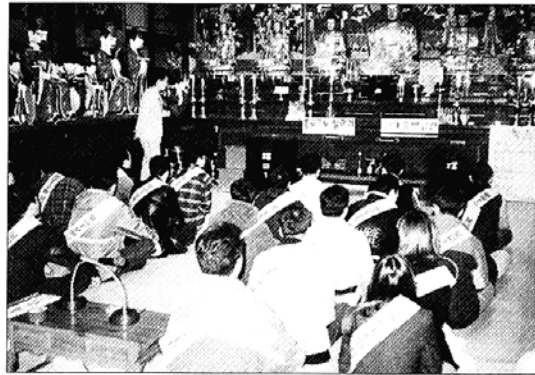
또 이날에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을 찾아가 성업공사의 금융부채 인수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 불교TV의 상황은 급박하다.

20일까지 21억원의 금융 부채를 상환하

지 못하면 성업공사로 이관돼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최악의 경우 파산의 상황까지도 예상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한다. 단신히 현황보고를 듣는 것만 되풀이 하기에는 불교TV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한편 불교TV 노조는 14일 조계사 덕왕전에서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단신 농성에 들어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 국민은행이 20일 이전에 채무관련 서류를 성업공사로 넘길 예정이어서 불교TV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0억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새 경영자가 나올 경우 적극적인 위기 탈출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15일 열린 이사회(사진 위)에서는 새 경영자 영입 가능성을 밝혔다. 불교TV노조는 14일부터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며 단신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아래)

## 조계종 사면 절차

### 90년대 세차례 실시

사면은 종헌·종법상 정정이 실시한다. 그러나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에게 품신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사면과 관련된 종헌·종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종정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종헌 23조) △총무원장은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종헌 54조 ②) △중앙종회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동의사항을 심의의 결한다.(중앙종회법 2조 15)

사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했다. 94년 5월 개혁회의 3차 회의에서 공권정치 등에 있던 최우, 밀운스님을 사면했고, 재직했던 승인스님을 공권정치 6개월로 경감했다.

95년 6월에는 사면 17, 복권 1, 경감 15명 등 33명의 스님에게 사면처치를 취했다. 96년 4월에도 13명의 스님을 사면했다.

84년에는 80년 10·27법안에 관련해 초심 호계원에서 벌금 및 제직의 징계를 받은 14명에게 사면을 실시했다. 정성운 기자

## "종단불사 원만회향"

### 조계종 분담금특위 첫모임

조계종의 '분담금 조정을 위한 실패과 특별위원회'(분담금특위, 위원장 지명)가 첫 번째 모임에서 세입입 확보 방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시켰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종단의 중요 시설 건립의 원만한 회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실패과사를 통해 분담금 책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특위의 중요 사안이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함께 참여하는 분담금특위는 13일 간담회를 갖고 중앙종무기관의 새로운 세입안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사 소속 산내 입자와 유명기도사찰 등을 대상으로 실시작업을 거쳐 분담금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담금 특별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은 승가대 김포학사 신숙 자장과 조계종 총부산 성역과 사업비등 종단의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

한 것이다. 우선 올해와 내년 새로 항목을 설정해

지출해야 할 액수만도 올해 예산을 넘는다. 우선 중앙승가대에 2백5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또 올해 착공해 2001년 완공 목표인 청사 신축에도 1백8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분담금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위 간사에 총무원 재무부장 임철스님과 종회 재정부과위 간사 종삼스님을 잠정 선출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인받기로 하는 한편 차기 회의는 위원장단에 일임했다.

분담금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간담회로 진행했다. 위원 2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남북 최고위급 만남...결실 기대

### 북경 남·북·일 종교인평화모임 의의

### 고산스님 KCRP 회장자격 참석

### 동북아 평화실천 계획-선언문 나올듯

25~27일 북경에서 열리는 남·북·일 종교인 평화모임에서 남북 종교인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의 회담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후 남북종교인 교류가 한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북한 의회 조산종교인협의회,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25~27일)에서 남북한 종교를 대표하는 최고위급 회담이 이뤄진다.(북경 평화모임 본지 216호 1면 참조)

조계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에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KCRP회장 자격으로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북한종교 협의회인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회장이 참석하게 될에 따라 남북한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인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북한불교 대표로 조선불교도연

맹의 위원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KCRP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종교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고산스님과 장재언회장은 남북한 종교인을 대표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천계획'과 '북경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더구나 남북종교인 협의체 대표들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협의체 가입 교단에 규정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경 평화모임은 세미나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천계획'과 '북경선언문'을 발표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어 단순한 회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천 계획과 북경선언문 발표를 위해 이미 남·북·일 실무자들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3차 실무

자들은 북경모임 이틀째를 '실천 계획' 도출을 위한 일정으로 잡았다. 두 차례의 토론과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열렸다.

실천계획과 선언문 내용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CRP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회를 그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매우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모임에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참석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와 관련, 이후 조계종 중심으로 합의 균형이 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침** 본지 218호 3면 '불족 주요 행사' 가운데 일부 행사의 장소는 다음과 같기에 바로 잡습니다. 불족기념 토론회(민족화합 불교추진회 주최)·조계사 문화교육관, 안숙선 관소리 '부처님 일대기'·도안사, 불족기념 학술대회(교수불자 연합회)·불교회관 1층, 청소년 종합 예술경연대회(청교련)·동국대 중앙당, 불교무용단 '님의 소리'(순재연 무용단)·동국대 문화예술극장.

우리는 지금 다채널방송사회에 살고 있어서 시청자의 선택권을 한껏 보장받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교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 특정 종교방송처럼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10일에 방영된 서울방송의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가 그런 예라 하겠다. 서세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 목어 방송인 서세원

여섯 차례에 걸쳐 '할렐루야'를 연발 하였고 심지어는 방청객들까지도 '아멘'을 연발토록 유도하고 있어서 마치 기독교방송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사실 그날의 서씨의 프로그램태도는 어쩌다 있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고도의 전술이라 생각된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었으니 거기에는 진행자, 연출가, 카메라맨이 합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들의 지나친 종교 편향적인 태도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아

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 백백을 선교하는 것보다 유명인 한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 왔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의 방송에서의 말 한마디는 그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방송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불교인으로서 못나 소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하면 그만일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불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 인지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불교신자가 노골적으로 불교 편향적인 진행을 하였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그 점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고 있으니 그 점 역시 문제인 것이다.

불자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넓고 넓은 자비심에서 나온 관용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탓이라 할 것인가?

성열 (본지는설위원·강남포교원장)

·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불교복지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불교의 참된 사회적 회향은 전문적인 교육이수와 아낌없는 실천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건강기법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보살행을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길을 찾으십시오.

♣ 개강일 : 1999년 4월 30일      ♣ 원서마감일 : 1999년 5월 4일

개설과정	과목	교육내용	학사일정	강의시간	특전
복지자비 포교사과정 (호스피스) (1년) 150시간 강의	필수 (포교사 기본)	불교기본교리(초발심) / 불교문화사 불교예절 / 비교종교론 / 현내포교론	1학기 4월 30일 ~ 7월 23일(3개월)	매주 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증 및 단원증 수여</li> <li>▶ 조계종 포교사 자격시험 추천</li> <li>▶ 불교호스피스 및 자원봉사팀 자격부여</li> <li>▶ 복지, 보건, 상담, 영물 : 포교활동 지원</li> <li>▶ 복지시설, 건강관련 업종 취업 및 강사활동 지원</li> <li>▶ 포교원 개설, 운영시 관련분야 지원</li> <li>▶ 본교 특강 개설시 특별우대</li> </ul>
	전공 (복지)	불교정신보전실천론 / 자원봉사론 복지실천론 / 불교사회복지론	2학기 9월 7일 ~ 12월 7일(3개월)	저녁 6시 50분 ~ 9시 40분	
불교간병 봉사자과정 (간병인) (2개월) 51시간 강의	전공 (호스피스)	상담심리이론 / 상담기법 / 인간관계 훈련 I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 스트레스 관리 신경정신질환관리 / 인간관계 훈련 II 심성개발 및 마음 관리 임종관리 / 영적관리			
	특강 I	불교의식(장엄봉사) : 32시간	5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50분 ~ 8시 40분	
	특강 II	고려수지침(염과요법) 생활기공 및 대체요법(미음다스리기) 정신세계 문화강좌	99년 7월·8월·12월 2000년 1월		
		개강식 / 건강과 질병 / 만성질환과 간호 / 노인간호 / 건강증진법 / 환자식사와 영양 / 누워있는 환자간호 / 운동요법 / 말기환자 및 통증관리 / 한방간호 및 각종 대체요법 / 경락이론 / 응급처치 / 산모간호 및 AIDS / 임종간호 및 영적간호 / 자원봉사자 정신교육 / 수료식	1999년 1차 5월 4일~6월 29일 (2개월) 1999년 2차 9월 7일~11월 9일 (2개월)	매주 화·금 오후 2시~5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증 및 단원증 수여</li> <li>▶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과정 수료증 수여 (대한적십자사)</li> <li>▶ 유급·유급 간병봉사자 활동 지원(유료 활동 가능)</li> <li>▶ 각종 건강정보 및 복지 정보 제공</li> <li>▶ 본교 특강 개설시 특별우대</li> </ul>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 건축사협회 B/D 6F  
문의 : 051)647-6556, 7      팩스 : 051)647-6554

명예학장 성오스님(범어사 주지·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장 헤도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성명	비고
1 성오스님	본교명예학장, 범어사주지, 조계종 부산, 경남포교지부장
2 헤도스님	본교학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3 정여스님	보현선원 선원장
4 능행스님	부장, 총부자비봉사교육원장
5 김기태	부산대교수 :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6 류기형	부산대교수 : 사회복지학과장
7 최송식	경상대교수 : 사회복지학과장
8 강동균	동아대학교 교수
9 락만연	충주대학교 교수
10 안창범	동원대학교 교수 : 의과대학학장
11 오양호	부산의대교수 : 부산불교의사회고문
12 백승완	부산의대교수 : 부산대학원 불자의사회회장
13 이회백	충주대학교 교수 : 상담심리학 과장
14 유태우	고려수지침요법학회 회장
15 박옥규	동아대학교병원 : 건강증진센터과장, 연불회회장
16 진성태	진신경정신과의원장 : 부산불교의사회회장
17 선과범사	조계종 법사
18 박규일	해동고등학교 교사, 조계종 포교사
19 배석주	대한적십자사수석서비
20 권봉숙	대동대학교 간호교수
21 김향미	충주대학교 간호교수
22 최송실	충주대학교 간호교수
23 홍순탁	동의원병원원 간호감독, 춘해대학임교수
24 김정자	본교교무과장 : 전임강사(전, 부산대학병원)
25 천순기	본교교과과장 : 전임강사(전, 부산대학병원)
26 황보선	본교부회장 : 전, 부산의대간호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